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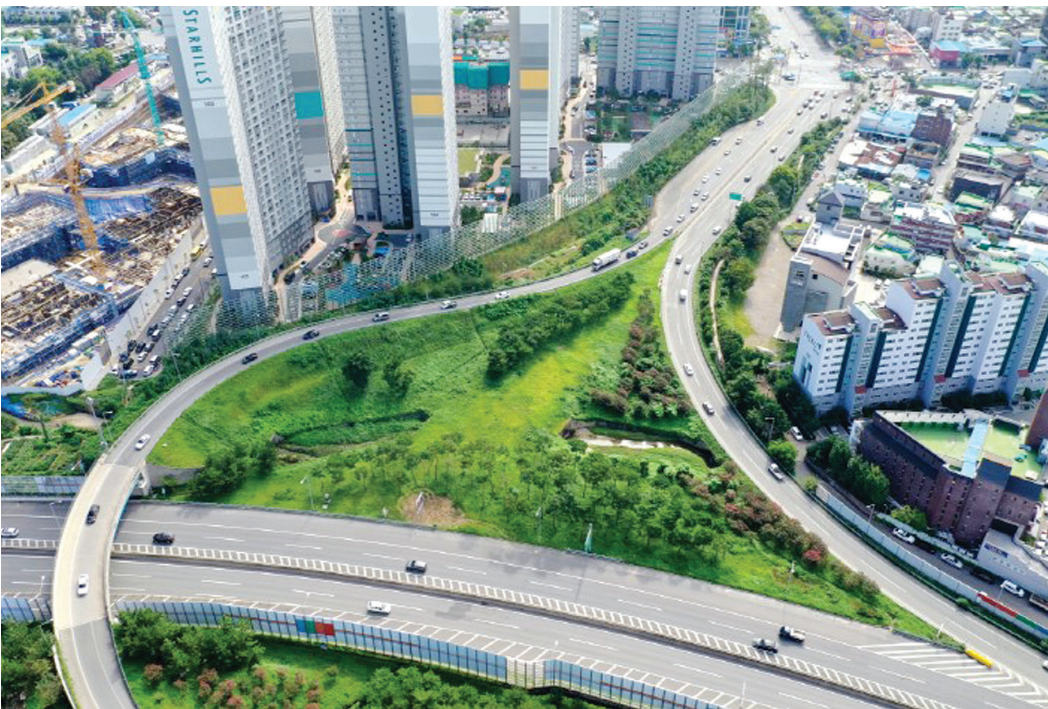
광주·전남, ‘호남권 통합 사업단’ 구성…R&D 전환 손잡다

지역 특화 사업 기술 개발 추진...국비 131억 확보
에너지·첨단모빌리티·AI+알파 3대 중점기술 선정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의 지역 자율형 연구개발(R&D) 체계 전환에 맞춰 손을 맞잡았다. 양 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4극 3특' 정책에 따라 호남권 통합 사업단을 구성하고, 지역 특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기술 개발에 본격 나선다. '4극 3특'은 정부의 지방육성책인 '5극3특' 체제에서 수도권권을 제외한 권역으로 과기정통부 지원정책의 뼈대다. 5일 과기정통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중앙 정부가 기획하고 공모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R&D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지역자율형 R&D 체계'로의 전환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권을 제외한 전국을 4개 권역(호남·충청·대경·동남)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 즉 '4극 3특'체제로 재편해 지원한다. 호남권(광주·전남)은 2026년 131억 원의 국비를 우

선 확보했으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약 300억 원 규모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광주와 전남은 협의를 통해 호남권의 미래를 책임질 3대 중점기술 분야를 선정했다. 전남의 강점인 에너지(신재생에너지 등) 광주의 주력 산업인 첨단모빌리티, 양 시·도가 공통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인공지능(AI)+알파'(인공지능 융합 기술)가 핵심이다. 특히 'AI+알파'는 인공지능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하는 형태로, 전남의 우주·항공, 농수산, 바이오 산업과 광주의 가전, 자동차 산업 등을 폭 넓게 아우를 수 있는 범용 기술로 기획됐다. 사업의 핵심 운영 주체는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맡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역 내 R&D 기획 역량이 뛰어난 과학기술원이 사업단 운영을 총괄하며, 지방정부와 협

력하여 과제 선정 및 성과 관리를 주도하게 된다. 광주와 전남은 이미 실무진 협의를 마치고 사업단 구성에 착수한 상태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타 지역에 비해 사업 추진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라며, "이미 실무 논의를 통해 대략적인 안을 도출했고, 구체적인 사업단 운영 방식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일정에 따라 양 시·도는 이달 말까지 중점기술분야 선정안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구체적인 신규사업 수요조사와 상세 기획을 거쳐 6월 중 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7월부터는 본격적인 R&D 과제 수행에 들어간다. '4극 3특' R&D 지원사업을 통해 광주와 전남은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은 물론, 연구 성과가 지역 산업 성장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역 스스로 혁신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지역 R&D 성과가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가 '극한 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국비 30억원을 투입해 2만 7000t 용량의 저류조를 설치할 북구 문흥동성당 일원 사업부지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 극한호우 대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국비 40억원 확보...북구 문흥동·북구청 사거리 등 2곳

'극한 호우'가 일상화됨에 따라 광주시가 북구 문흥동과 중흥동(북구청 사거리) 등 도심 상습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대형 저류조를 설치한다. 광주시는 5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폭우 시 빗물을 지하에 일시적으로 가둬 하수도와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량을 조절하는 대책이다. 확보된 예산은 침수 피해가 반복돼 온 북구 문흥동성당 일원과 북구청사거리 주변 등 2곳에 저류조를 설치하는 사업에 투입된다. 저지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민 통행이 컸던 문흥동성당 일대에는 올해 30억원이 예정됐다. 시는 이곳에 2만 7000t 용량의 대형 저류조를 매설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 기초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북구청 사거리 주변에도 10억원을 들여 1만 2700t 규모의 빗물 저장소를 만든다. 시는 상반기 중으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수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집중호우 시 도로 잠김으로 인한 교통 마비와 인근 상가 침수 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방재 체계를 확충할 방침이다. 단순 북구를 넘어 선제적 투자를 통해 시민 안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도시 안전 기반시설 확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자 필수 과제"라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기후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망을 촘촘히 짜겠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겨울에도 피톤치드 뽐뽐... 전남 난대숲, 산림 치유지 주목

황칠·동백·붉가시나무 등 탄소흡수 능력 탁월

전남 난대숲이 한겨울에도 '천연 항생제'인 피톤치드를 내뿜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은 겨울철에 휴면기에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지만, 상록활엽수가 우거진 전남의 난대림은 사계절 내내 풍부한 향균 성분을 배출하며 겨울철 산림 치유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5일 전남산림연구원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지역 난대숲을 대상으로 피톤치드(NVOC, 천연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황칠나무·생달나무·벗순나무 등 주요 난대 수종들이 겨울철에도 높은 수준의 향염·항알레르기 물질을

내뿜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테들러백(Tedlar bag) 공법을 활용해 잎과 가지에서 직접 성분을 포집하는 정밀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난대숲의 피톤치드 발생량은 기온이 가장 높은 여름철에 460ng(나노그램)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겨울철에도 154.3ng를 기록했다. 이는 가을(190.8ng)이나 봄(164.7ng)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낙엽이 지는 온대림과 달리 사계절 내내 잎이 푸른 난대 상록활엽수림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내뿜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테들러백(Tedlar bag) 공법을 활용해 잎과 가지에서 직접 성분을 포집하는 정밀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난대숲의 피톤치드 발생량은 기온이 가장 높은 여름철에 460ng(나노그램)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겨울철에도 154.3ng를 기록했다. 이는 가을(190.8ng)이나 봄(164.7ng)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낙엽이 지는 온대림과 달리 사계절 내내 잎이 푸른 난대 상록활엽수림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 개발제한구역 관리 '구멍'...무더기 불법행위 적발

무허가 건축 등 13건 확인...남구·광산구 단속인력 공백 드러나

광주에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과는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자치구 그린벨트(GB)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13건, 면적으로는 2885㎡에 달하는 불법 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자치구별로는 북구가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구·서구·남구·광산구가 각각 2건씩 적발됐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무허가 건축이 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무단 토지 형질변경(2건), 불법 시공(1건), 용도 변경(1건), 물건 적치(1건)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현장 관리를 책임져야 할 단속 인력 공백 문제도 심각했다. 관련 법규상 반드시 배치해야 할 단속반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곳은 총 4곳으로 파악됐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은 광산구는 3명의 인원이 부족했고, 남구 역시 1명이 모자라 체계적인 현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적발된 13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계고 처분을 내리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 조치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인력이 부족한 남구와 광산구에는 조속한 충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관리대장 정비가 미흡한 자치구에는 전수조사를 통한 기록 보완을 주문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단속 인력을 확충해 관리 시작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돌봄 문턱 낮췄다...광주다움 통합돌봄 '보편 복지' 전환

기준중위소득 160%로 확대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올해부터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시민 10명 중 8명이 비용 지원 혜택을 누리는 명실상부한 '보편적 돌봄'으로 거듭난다. 광주시는 오는 3월 국가 차원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60% 이하 가구로 전격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원 대상은 전체 시민의 77.6%까지 늘어난다. 다만 재정 효율성을 위해 소득 구간별로 본인 부담률을 차등화했다.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는 무료이며, 90~120% 구간은 30%, 120~160% 구간은 60%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1인당 연간 지원 한도는 150만 원이다.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꾀한다. 약사가 직접 가정을 찾아 복약 지도를 하는 '다제약물 관리'를 신규 도입해 총 13종의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했다. 아울러 퇴원 환자에 대한 사후 관리 모니터링제를 도입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www.kwangshin.ac.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 **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학부 대학원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